

성인 문해교육 기관의 자체 개발 교과서의 내용 제시 방식 분석 연구

김재춘 · 변효종[†] · 박은영
(영남대학교)

An Analysis of Literacy Textbooks for Adult Learners Developed by Adult Literary Education Institutes

Chae-chun GIM · Hyo-jong BYEON[†] · Eun-young PARK
Yeungnam University

(Received September 10, 2007 / December 4, 2007)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literacy textbooks for adult learners developed by adult literacy education institutes. In the study, six different kinds of literacy textbooks are collected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five evaluation criteria: unit organization, presentation way of Hangeul, type of content, level of content, and degree of subject integration.

The results of literacy textbook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literacy textbooks carry different forms of unit organization in different textbooks. Most textbooks are composed of lessons, without a hierarchical organization of lessons, whereas some textbooks carry a hierarchical structure of 'unit + lessons'. Second, Hangeul is mostly presented in the form of reading and writing and literacy textbooks tend to present Hangeul as constructing letter through combining vowels and consonants rather than as whole language. Third, literacy textbooks contain life-adjustment situations which would help adult learners to lead everyday lives more efficiently. Fourth, literacy textbooks carry different levels of educational content, ranging from 'basic Hangeul' through 'expanded content' to high level of Hangeul writing. Fifth, literacy textbooks appear to integrate educational content from different subjects in order to provide more relevant content for adult learners.

Key words : Content Analysis, Literacy of Adult Learners, Textbooks

I. 서론

성인 문해교육이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 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기초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국민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변효종, 2006)일 것으로, 2006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40만명의 성인이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적인 문해력이 없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성인 비

[†] Corresponding author : 010-5357-8413, ccgim@ynu.ac.kr

문해자들을 위해 시민단체,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야학, 종교단체, 문해교육전담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비문해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성인 문해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문해 성인들의 학력 인증방안,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한 연구도 이루어 졌다(백은순 외, 2002; 최돈민 외, 2004; 이지혜 외, 2004; 변종임 외, 2006; 김재춘 외 2006).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해교육 기관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재원확보문제, 교사 및 인력충원 문제 등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대다수 기관에서는 성인문해 교육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거나 초등학교 교재를 그대로 사용(백은순, 2002)하는 등 성인학습자의 특징에 적합하지 않은 교재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문해 성인들의 문해교육의 실효성이 우려된다.

일반적으로 성인 비문해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김재춘 외, 2006). 첫째, 성인 비문해자들은 유아나 아동과 달리 이미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성인 비문해자들 상당수는 50~60대 고령자로서 생애학습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이 많이 가지고 있으며, 생물학적, 생리학적, 신체적인 면에서 유아나 아동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셋째, 성인 비문해자 중에서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한다는 수치심과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인 비문해 학습자들은 문해교육 기관에 첫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고, 입문하더라도 심리적 부담감으로부터 쉽게 해방되지 못한다. 이처럼 성인학습자들은 그 동안의 사회생활을 통한 생애 경험을 지닐 뿐만 아니라 학령기의 아동과는 다른 심리적, 발달적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성인 문해교육에 있어서 교과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성인 학습자를 위한 문해교육 교과서는 학령기의 아동들을 위한 교과서와는 다른 내용과 조직 방식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인 문해교육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 제시 방식을 분석하여 적합성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성인 문해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개발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우리나라는 시민단체,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야학, 종교단체, 문해교육전담기관 등 381개의 기관에서 성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기관들 중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6개 기관을 선정하여 교과서 내용 제시 방식을 분석하였다. 몇몇 기관에서는 수학과 영어 교과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곳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문해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을 지닌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문해교육 기관 및 분석 대상 교과서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교과서 구분 (기관)	교과서 명	권수
A (대구아름다운학교)	· 국어기초	1권
	· 국어(1단계 ~ 10단계)	10권
B (마포평생학습관)	· 국어(초급/중급/상급 과정)	3권
C (부천문해교육기관)	· 지혜의 등대 I · 지혜의 등대 II	2권
D (평택상록수시민학교)	· 나랏말씀 I · 나랏말씀 II	2권
E (군산청학야학교)	· 희망을 키우는 우리 책 (1단계 ~ 3단계)	3권
F (안양사회교육센터)	· 우리글(함께 나누기)	1권
	· 우리글(1~6)	6권
계		28권

2. 분석 기준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 문해교육 교과서의 내용 제시 방식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교과서 단원 구성 방식, 한글의 도입 형태, 내용의 유형, 내용의 수준, 교과서의 통합 형태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영역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단원 구성 방식

교과서의 내용을 제시할 때 단원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원의 수, 단원의 쪽 수 등의 문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과서 단원의 구성 형식은 제시할 내용을 구조화 하는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나 성취감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원의 형식을 크게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의 세 방식으로 구분하여 각 교과서 별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때, 단원 수 및 단원별 평균 쪽수 등도 함께 분석한다.

나. 한글 도입 방식

일반적으로 글자를 처음 도입할 때에는 '조합식' 지도방식과 '통문자' 지도법의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전자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원리를 파악하여 글자를 익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지만 기억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학습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후자는 단어나 문장을 그림과 함께 제시한 후, 학습자들이 제시된 그림과 문장을 따라 읽고 쓰기를 통해 글자를 익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직 추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억력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지도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성인 문해교육 교과서에서의 한글 도입 방식과 한글 도입에서의 중요한 특징을 분석한다.

다. 내용 유형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 교과서에서는 문해교육과 직접 관련한 내용만으로 교과서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간단한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나 셈을 할 수 있는 능력 등 성인문해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내용, 성인들의 실생활과 관련한 내용, 성인들의 기본 소양과 관련이 있는 교양, 상식, 시사적인 내용이나 성인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교훈적인 내용 등 사회, 문화, 직업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력과 관련한 내용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별로 성인 문해교육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내용을 기술하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라. 내용 수준

문해교육 교과서의 내용을 제시할 때, 제시되는 내용의 수준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간단한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기초 능력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기본적인 문해력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제시한다. 둘째, 단순한 읽기와 쓰기의 능력을 넘어 좀 더 확대된 읽기와 쓰기 능력을 요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초 내용뿐만 아니라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용법 등을 짧은 글이나 문장을 통해 익힐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셋째, 단순히 읽고 쓸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초등이나 중등 학력과 관련하여 고차원적인 지적 사고의 활용 능력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는 초등 및 중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까지를 제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 문해교육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수준을 위에서 제시

한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의 수준과 내용 제시 과정에서의 중요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 교과 통합 방식

문해교육 교과서에서 내용을 제시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가 하는 교과의 통합 방식과 관련한 문제이다. 여러 교과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하여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교과의 특성에 맞도록 분리하여 별도의 교과서에 제시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여러 교과의 내용을 하나의 교과서에 포함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는 모든 교과 내용이 함께 제시되기 때문에 교과 간의 내용을 관련지으면서 총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반면, 분리하여 개발할 경우에는 교과서를 구성하기는 용이하지만 교과의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문해교육 기관에서의 교과 통합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합교과서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교과별 내용 구성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함께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성인 문해교육 교과서 분석을 위한 기준과 분석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교과서 분석을 위한 기준

분석 내용	세부 분석 내용
단원 구성 방식	· 단원의 형식 · 단원 수 및 단원별 평균 쪽수
한글 도입 방식	· 조합식 · 통문자식
내용 유형	· 문해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내용 · 의사소통력과 관련한 내용 (실생활 기능, 교양, 상식, 시사, 교훈 등)
내용의 수준	· 단순 읽기, 쓰기 능력 관련 내용 · 확대된 읽기, 쓰기 능력 관련 내용 · 고차원적 문해력 관련 내용
교과 통합 방식	· 교과 통합의 방식 · 교과별 내용 구성 비율

Ⅲ. 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6개 성인 문해교육 기관별로 교과서 내용 제시 방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단원 구성 방식, 한글 도입 방식, 내용 유형, 내용 수준, 교과 통합 형태의 순으로 제시한다.

1. 단원 구성 방식

성인 문해교육 교과서의 단원의 형식을 분석한 결과, 기관마다 교과서 단원 편성 방식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주로 ‘대단원+소단원’, ‘소단원’의 두 가지 형식으로 단원을 편성하고 있었다. 기관별로 단원의 형식과 관련한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B, D, E 교과서에서는 모든 단계의 교과서를 ‘소단원’을 중심으로 단원을 편성하고 있었다. 특징적인 것은 A, D, E의 경우 각 소단원에는 하나의 학습 주제를 제시하고 있었다. 즉 하나의 주제가 바로 단원의 성격을 지닌다. 반면, B 교과서에서는 하나의 소단원 속에 몇 개의 학습 주제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A 교과서에는 153개의 소단원이 있었고, B 교과서의 경우에는 3권의 교과서에 54개의 소단원과 381개의 학습주제가 있었으며, D 교과서에는 110개, E 교과서에는 113개의 소단원이 있었다.

F 교과서에서는 전체 7개 단계의 교과서 중에서 4단계까지는 ‘소단원’으로 단원을 편성하다가 나머지 세 개의 단계에서는 ‘대단원+소단원’ 형식으로 단원을 편성하고 있었다. 이 때 대단원은 시, 편지, 소설, 건강 상식, 생각을 주는 글, 짧은 글 등 글의 성격이나 형식별로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은 다시 ‘소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도 하나의 소단원은 하나의 학습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단원은 49개, 소단원 264개로 구성되어 있다.

C 교과서의 경우에는 2권의 교과서에 대단원 8개와 중단원 34개, 소단원 60개로 ‘대단원’과 ‘소

단원'을 병행하여 교과서를 구성하였다. 다른 기관의 교과서와의 차이점은 하나의 소단원이 몇 개의 학습주제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하나의 소단원 속에 내용을 몇 개의 학습주제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각 교과서별로 단원별로 평균 쪽수를 살펴본 결과, 기관별로 소단원의 경우 최소 1쪽에서부터 5쪽까지 걸쳐 있었다. 기관별로 교과서 단원 구성과 관련한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A 교과서의 경우 단계가 높아질수록 단원의 길이가 길어지도록 구성하는 한편, 각 단계 내에서의 단원 구성에서는 단원의 길이를 몇 개의 단원을 주기로 길고 짧은의 리듬을 두어 학생들의 학습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D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과서 전체가 기초한글 익히기 중심으로 교과서를 구성하였으며, 소단원의 쪽수가 1쪽에서 3쪽 이내로 동일한 분량으로 이루어지도록 단원을 구성하였다.

각 기관별 국어 교과서의 단원 형식, 단원 수, 단원별 평균 쪽수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성인 문해교육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방식

구분	단원의 형식	단원 수	단원별 평균 쪽수	비고 (주요 특징)
A	소단원 중심의 단원 편성	· 각 단계별 14개 썩의 소단원 (9단계는 17개) 153개의 소단원	· 5.78쪽	· 단계가 높아질수록 단원의 길이가 길어짐 · 길이가 긴 단원과 짧은 단원을 교차로 배열함 · 하나의 소단원에 학습 주제를 나열함
B	소단원 중심의 단원 편성	· 소단원 54개	· 소단원-7.06쪽	· 하나의 소단원에 학습 주제를 나열함
C	대단원+소단원 형식의 단원 편성	· 대단원 8개 · 소단원 34개	· 대단원-30.38쪽 · 소단원-7.15쪽	· 두 단계의 교과서에서 대단원과 중단원의 단원명 은 길고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 하나의 소단원에 학습 주제를 나열함
D	소단원 중심의 단원 편성	· 소단원 110개	· 1.26쪽	· 기초한글 익히기 중심으로 단원 구성 · 하나의 소단원에 하나의 학습주제를 제시함
E	소단원 중심의 단원 편성	· 소단원 113개	· 4.64쪽	· 하나의 소단원에 하나의 학습주제를 제시함
E	대단원 + 소단원, 소단원 방식의 혼용	· 대단원 49개 · 소단원 264개	· 3.25쪽	· 처음 4단계까지는 소단원 중심, 나머지는 대단원 + 소단원으로 편성 · 하나의 소단원에 학습 주제를 나열함

2. 한글 도입 방식

문해교육 교과서별 한글 도입 방식을 분석한 결과, A, B, D, E, F 등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조합식' 지도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림이나 문장을 통한 학습을 절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들 교과서에서 한글을 도입하는 순서를 살펴보면, 대체로 '모음과 자음 익히기' →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한글이 만들어 지는 원리'와 '글쓰는 순서' 등의 학습 → '간단한 단어나 문장 읽고 쓰기', 혹은 '그림을 보고 문장쓰기'의 순으로 글자를 익히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C 교과서에서는 글자를 익히기 위한 특별한 내용 제시는 없었으며, 교과서 중간에 자음과 모음의 음절 표를 간단하게 제시하는 것이 전부였다. 문해교육을 위한 내용 보다는 성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상식, 시사적인 내용의 학습을 통해 교양을 증진시키거나 교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었다.

3. 내용 유형

문해교육 기관별로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기관별 특징을 살펴보면, D 교과서의 경우에는 기초 문해교육과 관련한 내용만으로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었다. 전체 2권의 교과서에서 단원을 나열하는 중간에 '쉬어가기' 코너를 두고 속담이나 희곡, 복주머니 만들기 등 부분적으로 교훈, 시사, 교양, 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A, B, E, F 교과서에서는 문해교육과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성인의 실생활기능 내용이나 교양·상식·시사적인 내용 등의 성인의 기본 소양 내용, 교훈적인 내용 등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한 내용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었다. A 교과서의 '국어기초', B 교과서의 초급 및 중급과정, E 교과서의 '문해교육 I 단계'에는 문해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고 이후 단계에서부터 생활기능, 교양상식, 교훈적인 내용들을 추가하여 제시하였

다. 특히, F 교과서의 경우에는 ‘우리글-함께 나누기’와 ‘우리글 1’ 단계에서 문해교육과 관련한 내용만을 제시하고, ‘우리글 2’, ‘우리글 3’에서 생활기능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글 4’단계에서 ‘우리글 6’단계에서는 교양, 상식, 시사, 교훈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한편, C 교과서에서는 두 권의 교과서 모두에서 교양, 상식, 교훈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구성하였으며, 문해교육과 관련한 내용이나 생활기능적인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상의 문해교육 교과서별 내용 유형별 제시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	기초 문해 관련 (‘쉬어 가기’ 코너를 통해 다른 유형의 내용이 한 두 차례 제시됨)
---	--

모든 단계에서 문해교육 관련 내용만으로 교과서를 구성한 경우

구분	기초 문해 관련	의사소통 능력 관련 내용		
		실생활 기능	교양, 상식, 시사	교훈
A	국어기초단계	국어 1단계 - 국어 10단계		
B	초급, 중급과정	상급과정		
E	문해교육 1단계	문해교육 2단계 - 문해교육 3단계		
F	우리글 -함께 나누기- 우리글 1	우리글 2 우리글 3	우리글 4 - 우리글 6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내용을 추가한 경우

C	교양, 상식, 시사 + 교훈 (문해교육 관련 내용과 생활기능 관련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
---	---

모든 단계에서 여러 유형의 내용을 함께 제시한 경우

4. 내용 수준

문해교육 교과서별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내용의 수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단순한 읽기와 쓰기에 관련된 내용만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문해교육을 위해 필요한 최

소한의 내용만을 제시하는데 D 교과서가 이에 해당한다. ‘모음(홀소리) 배우기’, ‘자음(닿소리) 배우기’, ‘연상 낱말 익히기’, ‘기초 한글 익히기 (자음+모음)’, ‘기초 한글 읽고 쓰기’, ‘조사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등, 글자를 모르는 성인에게 글자를 익히고 간단한 조사를 활용하여 문장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내용만을 제시한다.

둘째, 좀 더 확대된 읽기, 쓰기 능력을 위한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읽기와 쓰기 능력을 요하는 기초 내용 뿐 아니라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용법 등을 짧은 글이나 문장을 통해 익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C, E 교과서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교과서에서는 문해력 관련 기초 내용을 먼저 학습하고 난 후 ‘꾸미는 말’, ‘감탄하는 문장’, ‘부호에 맞는 문장 만들기’, ‘권유하는 문장 만들기’, ‘흥내 내는 말’, 등 문해력과 관련한 간단한 용법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좀 더 고차원적인 문해력을 위한 내용까지 제시하는 경우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국어 문법이나 여러 가지 형식의 글이나 문장까지 제시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A, B, F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기관에서는 예를 들면, 두음법칙, 비유법, 육하원칙, 조사 및 접속사 등과 같은 국어 문법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꾸미는 말, 임자말, 높임말과 낮춤말, 흥내 내는 말, 권유문, 지시문, 감탄사 등 말의 용법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편지, 일기, 설명문, 주장하는 글, 희곡 등과 같이 다양한 형식에 대해서 익히고 관련한 글을 제시하여 읽기와 쓰기를 익히도록 하고 있었다. 문해 교과서에 제시된 수준별 내용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단원 구성 방식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 단원을 구성할 때 ‘대단원+소단원’ 형식과 ‘소단원’ 형식의 단원 구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중요한 특징으로는 ‘소단원’ 방식으로 단원을 구성할 때,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단원을 구성하는 경우와 하나의 단원에 여러 개의 학습 주제를 세분화 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교과서를 여러 권으로 분철할 때, 단계별로 ‘소단원’ 중심의 편성과 ‘대단원+소단원’ 방식의 단원 편성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A 교과서의 경우 긴 단원과 짧은 단원을 혼합하여 제시한다거나 단원의 후반부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선택하여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단원 중간 중간에 쉬어 갈 수 있는 ‘쉬어가기’, ‘수수께끼 카드’ 등과 같은 코너를 마련하여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감을 완화하면서 흥미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성인 문해교육 교과서의 경우 단원의 구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었으며, 교과서 단원을 구성할 때, 하나의 단원 조직 방식보다는 융통성 있는 단원 조직 방식이 활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분석 대상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소단원’ 형식으로 학습주제를 나열할 때, 단원의 분량이 5쪽 내외로 그리 많은 양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학습 대상이 연령이 높은 성인임을 고려한 것으로 한 단원에 제시되는 학습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학습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혹은 길어도 이틀 정도의 학습으로 마칠 수 있도록 내용 양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령의 성인 학습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반응의 속도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원을 지나치게 길게 해서 며칠에 걸쳐서 하나의 단원을 학습하도록 할 경우, 지루해하거나 힘들어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 문해교육 교과서를 개발할 때는 하나의 단원 조직 방식보다는 융통성 있는 단원 조직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원을 구성할 때에는 단순하게 일률적

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강도의 단원을 일률적으로 배열하기 보다는 학습의 긴장과 편안함을 교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단원을 구성함으로써, 성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습 부담감을 완화하면서 흥미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단원의 구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인 문해교육 교과서의 한글도입 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글 교육은 주로 자음이나 모음 익히기와 함께 글자의 원리를 중심으로 먼저 가르치고, 간단한 단어나 문장을 읽고 쓰거나 그림을 통해 글자를 익히는 방식을 서로 절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글쓰기의 경우 아직 발달이 미숙한 아동의 경우와는 달리 원리 중심의 교육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대상이 고령의 성인 학습자임을 감안한다면, 한 가지 방식에 치우치기 보다는 ‘ㄱ+ㅏ=가’와 같이 글자의 조합의 원리와 그림을 통해 글자를 익히는 통문자식 학습 방법, 그리고 간단한 낱말이나 문장을 보고 따라 읽고 쓰기 연습을 통해 글자 익히기 등 다양한 방식을 적절하게 절충하는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주로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성인들은 발달이 완성된 단계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하기와 듣기와 관련해서는 생활에 불편이 없고 다만 읽기와 쓰기 능력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문해교육은 주로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 성인 문해교육 교과서에서의 내용 유형과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기본 문해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되, 다양한 유형의 내용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성인의 문해력 향상뿐만 아니라 실생활 기능과 관련한 내용, 상식이나 시사 등 교양 증진을 위한 내용,

교훈적인 내용, 성인들의 배움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때 다양한 유형의 내용을 교과서 첫 단계에서부터 직접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단계에서는 문해교육을 위한 내용을 주로 제시하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다른 유형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글자를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부터 너무 많은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자의 학습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권에 많은 유형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여러 권의 교과서에 나누어 제시하는 것은 성인의 학습 능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지역과 관련한 소재 혹은 성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소재를 찾아서 적절하게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속한 지역관련 내용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성인 학습자들은 생활하면서 글자를 알지 못해 겪었던 불편함을 예로 들어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간판 읽기, 버스나 지하철 노선, 안내 표지판 등 학습자의 경험과 친숙한 내용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를 개발할 때 고려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 문해교육 교과서를 구성할 때 다양한 유형의 내용들을 골고루 선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성인 학습자들은 풍부한 생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이론이나 개념을 직접제시하기보다는 성인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론 및 개념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인의 생활과 관련한 내용들은 학습동기와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문해교육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통합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여러 교과를 한편으로 통합한 문해 중심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해 교과서 외에 일부 교과를 별도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교과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문해교육 내용만을 다루는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성인은 이미 발달이 완성된 상태로 사물과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개발할 때는 여러 개의 교과 내용을 별도의 교과서로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성인 학습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통합된 형태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권의 교과서에 통합하는 방안과 중요 교과를 중심으로 별도의 교과서를 추가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개발할 때는 여러 개의 교과 내용을 별도의 교과서로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성인 학습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통합된 형태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권의 교과서에 통합하는 방안과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별도의 교과서를 추가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2).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4). 2004 평생교육백서.
 김재춘, 곽병선, 박소영, 김라경(2005). 초등학교 교과서 개발의 절차와 원리 구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5-5.
 김재춘, 박소영, 변효종(2006). 성인 문해교육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6-32.
 김종서 편(2001). 한국 문해교육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백은순, 윤복남, 변종임, 이세정(2006). 성인학습

- 자를 위한 초·중학교 학력인정 방안 연구. 한국 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2-52.
- 변종임(2006). 성인 문해교육의 현황과 과제. 2006년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설명회·관계자 연수 교재. 한국교육개발원 연수교재 TM 2006-12. 5~20.
- 양병찬(2004). 학습권 관점에서 본 성인 문해교육 지원. 평생교육학연구, 10(4), 207~230.
- 윤복남(2002). 문해교육의 의의와 문해조사의 문제. 한국교육학연구, 8(2), 255~274.
- 이지혜, 김남서, 변종임, 양병찬(2004).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과제 2004-공모-6.
- 이지혜, 김재춘, 남기곤, 변종임, 이세정(2004). 단위이수제에 의한 성인초등학력 인정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4-51.
- 이희수, 이지혜, 안도희, 변종임, 박상욱, 권재현, 이현석(2002).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2-49.
- 이희수, 한유경, 박현정, 이세정, 이정희, 권재현(2001). 한국 성인의 문해실태 및 OECD 국제 비교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1-47.
- 정찬남, 전은경, 이지연(2004). 성인기초교육 운영 사례집.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4-70-4.
- 최돈민, 유한구, 윤여각, 김재춘, 이지혜, 이세정(2004). 성인 초등학력 인증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4-50.
- 한국문해교육협회 엮음(2005). 한국의 문해교육. 서울: 문음사.